

지식과 정보 담은 '보물창고'의 발자취

안춘근·윤형두 엮음 《눈으로 보는 책의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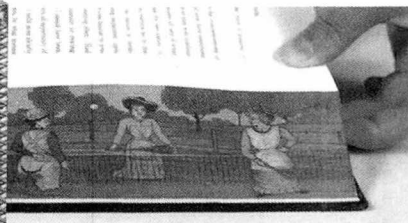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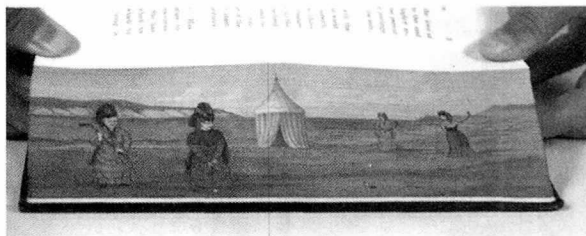
나무껍질이나 죽간, 비단에 한 자씩 써서 기록을 전하기 시작했던 인류에게 책의 역사는 곧 문명의 역사다. 고대부터 중세를 거쳐 산업사회와 정보사회에 이르는 오늘날까지 책은 인류문명의 원동력을 담은 지식과 정보의 보물창고였다. 최근 나온 《눈으로 보는 책의 역사》(범우사)는 그 발자취를 한눈에 펼쳐보인다. 서지학자·고서수집가로 명성이 높았던 일본의 쇼오지 센스이의 저서를 국내 서지학자 고 안춘근씨와 윤형두(범우사 대표)씨가 우리 출판물 부문을 보완해 다시 엮은 국내판은 우리나라 '애서가'들의 눈길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

고풍스런 색감 드러나는 옛책들

옛책들의 고풍스런 색감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도판편>에는 책 탄생 이후 나온 온갖 '책'들에 담긴 인간의 정성과 애정을 엿볼 수 있다. 송아지나 새끼양 가죽으로 만든 고급종이 벨럼에 필사한, 중세에서 가장 오래된 백과사전 《에티몰로지》는 각 절의 표제를 붉은색 혹은 푸른색의 장식글자로 시작한다. 1286년 도미니크 수도회에서 만든 백과사전 《카톨리콘》은 딱갈나무판에 교회 창문이나 침탑에서 볼 수 있는 문양을 조각하고 감색 모로코 가죽을 붙인 후 금박을 박은 장정이 뛰어나다.

15세기에 만들어진 《카톨릭 기도서》는 벨럼 채색장식 사본으로 전통적인 전례의 내용과 어울려 우아함이 돋보인다. 최초의 활자인쇄본으로 알려진 구텐베르크의 《42행 성서》는 500여년전 인쇄된 활자임에도 단아함이 그대로 간직돼 있다. 또 목판화 삽화가 많은 코베르거판 《성서》(1483)와 양피지에 필사된 1400년경의 《이솝이야기》, 성서를 기초로 세계역사 지리를 수록한 《연대기》는 풍부한 삽화와 지도가 특징적이고, 유럽 각지를 여행하며 만든 독일의 지리학자 오텔리우스의 《세계지도집》(1572)은 마르코폴로의 《동방견문록》에서 영감을 받은 흔적을 볼 수 있다.

4대 복음자(마태·마가·누가·요한)의 생애를 기록한 《4대 복음기자의 생애》는 세공된 은 위에 섬세한 금박을 붙이고 중앙의 그리스도와 네명의 복음자들로 꾸며진 표지에서 당시 책에 쏟은 사치와 정성의 극치를



- 구텐베르크의 조수였던 멘테링의 사위 아들프 루쉬가 만든 <카톨리콘> 백과사전.
- <영국의 딸들·영국의 여성들·영국의 아내들·영국의 어머니들>. 각각마다 여성들이 스포츠를 즐기는 모습을 인쇄해 흥미롭다.
- <4대 복음기자의 생애>. 표지 에나멜칠의 세밀한 그림은 그리스도와 4명의 복음기록자들이다.
- 점토 재질의 원추봉에 기록된 기원전 2130년의 설형문자.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보는 듯하다. 이밖에도 영국의 사학자이자 과학자인 존 해리스의 《항해 여행기》나 1766년 첫권이 간행된 이후 세계적인 명성을 날리게 된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세계 최고의 목판인쇄물인 신라의 《무구정광대다라니경》과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인 고려 때의 《불조직지심체요절》(1377)도 볼 수 있다.

명저들의 실물 한데 모아

한편 각종 문자가 새겨진 점토판과 파피루스를 모은 <책 이전의 책> 편에서 이집트 문자·설형문자의 생생한 역사기록을 보여준다. 그림문자의 해독을 통해 신앙 혹은 소영수증, 5일분의 빵을 지급한 증명서 등의 인간활동을 읽을 수 있다.

본격적인 책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 대표적인 책을 뽑아 실은 <책의 역사> 편에는 나라마다 손꼽힐 역저와 명저를 보여준다. 헤로도투스의 《역사》(1592), 흠스의 《리바이어던》(1651)에서부터 밀턴의 《실락원》(1678), 디포의 《로빈슨 크루소 표류기》(1790), 리카도의 《경제학 및 과세의 원리》, 웹스터 《영어사전》(1828), 다윈의 《종의 기원》(1859) 마르크스의 《자본론》(1867~94) 안테르센의 《동화와 이야기》(1870), 독일의 《설록 흠스의 모험》(1892), 그림형제의 《그림동화집》(1909),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1927~28), 스타인벡의 《에덴의 동쪽》(1952)까지 연대순으로 펼쳐지는 책들은 동서양 명저들의 예술에 가까운 책 제작의 변화까지 읽을 수 있다. 이밖에도 마르크스·피테·투르게네프 등의

육필을 모은 자필서간류와 세계적인 문호 셰익스피어와 찰스 디킨스, 프리드리히 폰 밀러, 빅토르 위고 등의 희귀 판본들을 모아 보여주며, 이제껏 잘 접할 수 없었던 일본의 고판본도 색다르다.

특히 《보협인다라니경》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서책들은 글자체의 섬세한 변화를 나타내고 있어 활자문화 종주국으로서의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고대부터 현대의 인쇄출판과 각국의 출판문화를 요약해놓은 《해설》은 '눈으로 보는 책의 역사'의 입체감을 더욱 풍성하게 해주는 또다른 기록이다.

— 김지원 기자

범우사/B4/408면/6000원